

한국판 여성에 대한 미묘한 차별 척도(K-MAWS) 타당화 연구: 여성 내담자를 대상으로*

유 현 서 김 수 임[†]
단국대학교 상담학과
석사 졸업생 교수

본 연구는 여성 내담자가 상담 장면에서 경험하는 미묘한 차별을 측정하기 위해 Owen 등 (2010)이 개발한 ‘여성에 대한 미묘한 차별 척도(MAWS)’를 한국 여성 내담자를 대상으로 타당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상담 경험이 있는 성인 여성 528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무작위로 추출한 264명에게 탐색적 요인분석을, 나머지 264명에게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원척도와 동일한 1요인 구조의 7문항이 국내 여성 내담자에게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K-MAWS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2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으며, 타당도 검증 결과 성차별 사건 및 일상 속 성차별 경험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상담 만족도, 상담자 평가, 작업동맹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여 수렴 및 준거 관련 타당도가 입증되었다. 본 연구는 그동안 국내 상담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웠던 상담 내 미묘한 성차별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상담자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 및 성평등한 상담 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미묘한 차별, 젠더 마이크로어그레션, 상담 장면, 여성 내담자, 척도 타당화

* 본 연구는 유현서(2024)의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상담 속 성차별 경험 척도의 타당화’ 중 일부를 발췌, 수정한 내용임.

[†] 교신저자 : 김수임, 단국대학교 상담학과,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Tel : 031-8005-3364, E-mail : si_kim@dankook.ac.kr



Copyright ©2026, The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한국 사회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및 2015년 양성평등기본법 전면 개정, 성인지 감수성 교육 확대 등 다양한 제도적·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왔다(마경희 등, 2016; 이도경, 김형빈, 2022). 이러한 제도적 변화와 함께 여성의 사회 참여가 양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한국 사회의 여성 인권은 과거에 비해 상당한 향상을 이루어낸 것으로 평가된다(송유미, 이제상, 2011). 그러나 이러한 가시적인 변화는 최근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형성하거나, 오히려 남성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담론이 대두되는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마경희 등, 2017).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9)의 조사에 따르면, 20대 여성의 약 73.5%가 일상생활 속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반면, 20대 남성은 33.1%만이 이에 동의하였다. 여성가족부(2021) 조사에서는 51.7%의 남성이 한국 사회가 남성에게 불평등하다고 답하였으며, 이는 젠더 이슈에 대한 인식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객관적인 국제 지표들은 한국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적 불평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이 발표한 2025년 세계 젠더 격차 보고서(Global Gender Gap Report)에 따르면, 한국은 148개국 중 101위를 기록하며 하위권에 머물렀다(임철휘, 2025). 또한, 한국은 지난 2013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9개국 중 ‘유리천장 지수’에서 매년 최하위에 머무르다 2025년 처음으로 한 단계 오른 28위를 기록했으며, 2024년 성별 임금 격차는 31.6%로 여전히 최하위를 기록했다(백재

연, 2025). 실제로 한국여성민우회가 2017년 한국 여성 1,2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93%가 한국은 성평등한 국가가 아니라고 응답하였으며, 여성들은 경제, 교육 영역을 넘어서 복지, 보건, 가정 등 생활 전반에서 성차별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객관적 지표로 확인되는 성차별적 현실에도 불구하고, 성차별의 심각성을 축소하거나 부인하는 등 성별에 따라 차별을 다르게 인식하는 현상에 대해, 본 연구는 현대 사회의 성차별이 과거의 양상과는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과거의 노골적이고 명백한 방식으로 표출되는 구식의 성차별(old-fashioned sexism)은 감소하는 반면, 은밀하고 모호한 형태의 현대적 성차별(modern sexism)은 증가하는 추세이다(Lee, 2025; Swim et al., 1995). 여성을 향해 성차별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무지하거나 과격한 편견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미묘하고 보이지 않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Sue & Spanierman, 2020). 최근에는 이러한 현대적 성차별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미묘한 성차별(gender microaggression)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의도성과 관계없이 일상적인 언어나 행동을 통해 여성에게 적대적이거나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은하, 2018; Sue & Spanierman, 2020). 이러한 미묘한 성차별은 겉으로는 호의적인 태도로 포장되기도 하여 식별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여성의 능력을 평가절하하거나 성적 대상화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적 성취와 기회를 제한하는 기제로 작동한다(Feigt et al., 2022; Kim & Meister, 2023).

무엇보다 이러한 미묘한 성차별 경험은 여

성의 심리적 어려움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묘한 성차별 경험은 상황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무력감이나 억울함 등의 복합 정서와 관련되며, 우울 및 심리적 디스트레스와도 정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재희, 이영순, 2021; Feigt et al., 2022).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미묘한 차별(microaggression)은 가해자의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주변으로부터 사소한 문제로 치부되기 쉬우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판단을 불신하는 자기 의심(self-doubt)을 경험하게 된다(Perez Gomez, 2022; Sue & Spanierman, 2020). 특히 가해자가 주로 가까운 지인이나 권위 있는 인물이라는 점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각적인 대처를 더욱 어렵게 만들며, 이러한 미묘한 차별 경험은 심리적 고통 및 부정적인 정신 건강 지표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ue & Spanierman, 2020; Wong et al., 2014).

미묘한 성차별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대두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도구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왔다. 여성에 대한 성차별 경험을 측정하는 초기 연구들은 주로 노골적이고 명시적인 차별에 초점을 두었다. 대표적으로 Klonoff와 Landrine(1995)의 성차별 사건 척도(Schedule of Sexist Events [SSE])는 여성의 생애 전반에서 겪는 성차별 사건을 평가하는 도구이다. 이후 Swim 등(1995)의 현대적 성차별 척도와 Glick과 Fiske(1996)의 양가적 성차별 척도는 ‘성차별 부인’, ‘여성의 요구에 적대적’, ‘온정적 성차별 태도’와 같은 현대적 성차별을 측정하는 데 활용되어 왔다. 최근에는 여성들이 일상과 특정 사회·조직적 맥락에서 경험하는 미묘한 수준의 성차별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도구들이 개발되고 있다.

Capodilupo 등(2010)이 개발하고 Judson(2014)이 타당화한 미묘한 성차별 척도(Gender Microaggression Scale [GMS])는 ‘전통적 가사 의무 기대’, ‘외모 압박’, ‘결혼 및 출산 기대’ 등 여러 하위 요인을 통해 여성들이 사회 전반에서 경험하는 미묘한 성차별을 다차원적으로 평가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Becker와 Swim(2011)의 일상 속 성차별 척도(Everyday Sexism Checklist)는 ‘성차별 부정과 성 역할 고정관념’, ‘여성의 미모를 강조’와 같이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마주치는 성차별 경험에 주목하여, 여성의 일상 속 성차별 노출과 그 심리적 반응을 탐색하는 데 사용된다.

또한 Lewis와 Neville(2015)의 흑인 여성의 성차별 경험 척도(Gendered Racial Microaggressions Scale for Black Women [GRMS BW])는 ‘외모에 대한 가정과 성적 대상화’, ‘침묵하고 배제된’, ‘강한/화난 흑인 여성 고정관념’과 같은 하위 요인을 통해, 흑인 여성이 교차적 위치에서 경험하는 젠더화된 인종적 미묘한 차별을 측정하는 도구로 제시되었다. 더 나아가 Algner와 Lorenz(2022)가 개발한 미묘한 모욕과 미묘한 무효화 척도(Microinsults and Microinvalidations Scale 16 [MIMI 16])는 미묘한 모욕과 미묘한 무효화라는 두 하위 요인(총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직장 내 미묘한 성차별 경험을 정교하게 측정한다. Miyake 등(2025)의 여성의 미묘한 차별 척도(Women’s Microaggressions Scale [WoMenS])는 소셜 미디어 자료와 선행 이론을 바탕으로 성적 대상화, 주변화, 성차별적 농담 등 다양한 유형의 여성 대상 미묘한 성차별을 8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 다차원 척도로, 여성들이 일상생활 전반에서 경험하는 미묘한 성차별의 폭넓은 양상을 포착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이러한 척도

개발의 흐름을 통해 여성들이 대중 매체, 직장 등 일반적인 사회 환경에서 겪는 미묘한 차별 양상이 다각도로 규명되고 있다.

이상의 연구들이 일상이나 직장에서의 미묘한 성차별을 측정하고자 했다면, 미묘한 성차별은 치료적 개입이 이루어지는 상담 장면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회복을 돕는 조력자인 동시에 전문적 권한을 지닌 존재로서,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는 필연적인 힘의 불균형이 존재한다(Shelton & Delgado-Romero, 2011). 이러한 위계 관계 속에서 내담자는 상담자의 미묘한 차별적 발언이나 태도를 인식하더라도, 상담 관계의 훼손을 우려하거나 전문가의 권위에 압도되어 이를 문제 제기하기 어렵다(Sue et al., 2007). 특히 한국 사회는 Hofstede(1980)의 문화 차원 중 권력 거리(power distance)가 큰 사회로 분류되는데, 이는 구성원들이 권력의 불평등한 배분을 수용하는 경향이 강함을 의미한다(최성욱, 2015). 상하 관계와 위계를 중시하는 한국의 문화적 맥락에서는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비대칭적인 관계가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지각되는 것은 아니며, 상담자의 권위나 지도적 역할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실제 내담자들은 상담자가 직접적인 조언이나 지도를 제공해 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상담자가 존경할 만한 권위자나 어른의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하기도 한다(김창대 등, 2009; 장성숙, 2010). 그러나 이러한 상담자의 권위는 내담자의 성장을 돕는 긍정적 자원이 될 수도 있지만(장성숙, 2003), 상담자가 개인적인 편견이나 사회·문화적으로 습득한 성 역할 고정관념을 내면화하고 있을 경우, 그 권위는 오히려 차별적 메시지를 강화하여 전달하는 도구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이때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성차별적 태도가 상담자의 성별과 무관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성이 상담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상담자가 같은 여성에게 성별 고정관념을 드러내는 현상은 ‘내면화된 성차별(internalized sexism)’의 개념으로 설명 가능하다. 내면화된 성차별이란 사회·문화적으로 내면화된 억압의 한 형태로, 여성이 자신 또는 다른 여성에게 성차별적 행동과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Bearman et al., 2009). 여성은 외부의 성차별적 시선을 내면화함으로써 스스로를 억압할 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타인에게 성 역할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전달하는 주체가 되기도 한다(Jost & Banaji, 1994; Jost et al., 2004). 따라서 상담자가 가부장적 사회화 과정에서 습득한 편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면, 상담자의 성별이 무엇이든 간에 여성 내담자는 일상적 관계뿐만 아니라 상담 관계에서도 차별과 억압을 반복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김민예숙, 장문순, 2004).

상담에서의 미묘한 성차별은 구체적으로 여성 내담자의 수동성이나 의존적 행동을 지지하거나 외모를 칭찬하는 등의 ‘온정적 성차별’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며(Glick & Fiske, 1996; Owen et al., 2010), 내담자의 호소 문제를 성별 문제와 무관한 것으로 취급하여 무시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Nadal, 2008). 또한 상담자의 내면화된 성 역할 고정관념은 내담자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편향을 일으킬 수 있는데, 가령 여성 내담자가 겪는 부당한 현실에 대한 분노나 고통을 정당한 반응으로 보기보다 지나치게 예민한 반응이나 개인적 대인 관계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상담 장면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미묘한 성차별에 해당한다(Sue et al., 2022). 실제로 조훈제 등

(2023)의 연구에서도 상담자의 성별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성차별을 경험한 내담자의 호소 문제의 원인을 내재적으로 귀인하는 정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Owen 등(2010)은 여성 내담자에 초점을 맞추어 상담 장면에서의 성차별 경험을 측정하기 위한 여성에 대한 미묘한 차별 척도(Microaggressions Against Women Scale [MAWS])를 개발하였다. 그 개발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Constantine(2007)의 연구를 기반으로 여성 내담자 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여 총 다섯 가지의 미묘한 성차별 유형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성적 대상화(예, 여성 내담자의 신체를 부적절한 시선으로 바라봄), 여성의 심리적 고통에 대한 고정관념(예, 여성에게 더 많은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간주함), 진단 관련 선입견(예, 여성은 우울증 진단을 받을 확률이 높음), 둔감한 치료 제안(예, 관계에서 여성의 수동성을 전제하는 등 고정관념적 성 역할 행동을 조장함), 젠더 문제 무시(예, 젠더 사회화 문제를 다루거나 이해하지 않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를 바탕으로 성차별 관련 문헌 검토 및 여성 심리학자 패널의 자문을 거쳐 문항을 구성한 후, 단기 상담에 참여한 여성 내담자 121명을 대상으로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요인 구조 및 내적 합치도가 양호하게 나타났으며, 내담자가 지각한 미묘한 차별은 작업동맹 및 상담 성과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특히 작업동맹이 미묘한 차별과 상담 성과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척도 개발 이후, MAWS는 최근 DeBlaere 등(2023)의 연구에서 흑인, 원주민 및 유색인 여성(Black, Indigenous, Women of Color

[BIWOC]) 288명을 대상으로 미묘한 성차별과 인종 차별, 상담자의 문화적 겸손, 작업동맹, 긍정적 상담 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활용된 바 있다. 이 연구에서 두 형태의 미묘한 차별은 모두 문화적 겸손과 작업동맹, 긍정적 상담 성과와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문화적 겸손과 작업동맹이 미묘한 차별과 상담 성과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AWS는 상담 장면의 특수성을 반영해 주는 도구로서 강점이 있다. 그러나 Owen 등(2010)이 이 도구를 개발한 연구에서 초기 타당도 근거 수준(initial evidence)이라고 밝혔듯이 이후 추가 검증이 많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미묘한 성차별 측정 도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Gartner 등(2020)의 주제 범위 문헌 고찰(scoping review)에 따르면, MAWS를 상담 및 심리치료 장면에서 특화된 대표적인 척도 중 하나로 다루고 있지만, 타당도 검증 연구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국내에는 상담 맥락에서의 미묘한 성차별을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원척도가 안고 있는 한계가 존재하기는 하나, 연구의 시작 단계로 이를 번안하고 타당화하는 작업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미묘한 성차별을 측정하기 위해 활용되는 도구로는 김은하(2018)가 개발한 일상 속 성차별 경험 척도(Everyday Gender Microaggression Scale [EGM]), 김은하 등(2017)이 개발한 직장 내 성차별 경험 척도(Microaggression against Women Scale in the Workplace [MAWS]), Klonoff와 Landrine(1995)이 개발한 성차별 사건 척도(Schedule of Sexist Events [SSE]) 등이 있다. 그러나 일상 속 성차별 경험 척도와 직장 내 성차별 경험 척도는 각각 일상과 직장이라는 특정 장면을 전제하

고 있어, 상담자-내담자 간의 특수한 권력 관계와 치료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차별 경험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성차별 사건 척도의 경우 총 20개 문항 중 상담에서 경험하는 성차별을 측정하는 문항은 “여자라는 이유로 전문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예, 의사, 간호사, 학교 상담자, 심리상담사)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의 단 한 문항에 불과하여, 상담 과정에서 겪는 복합적이고 미묘한 성차별의 양상을 심층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에 대한 미묘한 차별 척도(MAWS)를 국내 실정에 맞게 번안하고, 이를 ‘한국판 여성에 대한 미묘한 차별 척도(K-MAWS)’로서 활용하기 위한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타당화된 척도를 통해 여성 내담자의 성차별 경험에 대한 실증적 연구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더욱 안전하고 치료적인 상담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한국판 여성에 대한 미묘한 차별 척도의 요인 구조는 어떠한가?
2. 한국판 여성에 대한 미묘한 차별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어떠한가?

방 법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는 성차별이 전 생애에 걸쳐 경험될 수 있다는 선행 연구(강혜원, 이정운, 2020; 박기남, 2004; 차혜진, 김명찬, 2021)에 근거하여, 연구대상을 상담 경험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 여성으로 설정하였다. 자료수집은 2024년 2월 5일부터 2월 8일까지 온라인 설문 조사를 통해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여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지역 기반 온라인 카페, 대학생 커뮤니티 및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에 설문 참여 링크를 배포하는 편의표집(convenience sampling) 방식을 활용하였다. 설문 시작 전, 모든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 절차, 비밀 보장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안내하였으며, 이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해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인구통계학적 문항과 본 연구의 한국판 여성에 대한 미묘한 차별 척도, 그리고 타당도 검증을 위한 성차별 사건 척도, 일상 속 성차별 경험 척도, 상담 만족도 척도, 상담자 평가 척도, 작업동맹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소요 시간은 약 15분 내외였다. 설문을 완료한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기프트콘)을 제공하였다.

총 533명이 설문에 참여하였으나, 이 중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남성 응답자 및 불성실 응답자 5명을 제외한 총 528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전체 연구 참여자 528명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20대가 296명(56.1%)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188명(35.6%), 40대 40명(7.6%), 50대 이상 4명(0.8%) 순이었다. 최종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343명(65.0%)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고등학교 졸업 108명(20.5%), 대학원 이상 76명(14.4%), 기타 1명(0.2%)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이 413명(78.2%)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비수도권이 115명(21.8%)이었으며, 직업은 사무·관리직 239명(45.3%), 학생 92명(17.4%), 서비스업 66명(12.5%), 전문직 43명(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험한 상담의 총 회기 수는 6~10회 153명 (29.0%), 3~5회 149명(28.2%), 1~2회 112명 (21.2%) 등으로 10회기 이하의 단기 상담이 주를 이루었다. 이용한 상담 기관(중복 응답 포함)은 사설 상담기관(220명), 대학 내 상담실(148명), 청소년 상담기관(91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담을 진행한 담당 상담자의 성별에 대해 단일 응답한 456명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여성 상담자가 319명(70.0%), 남성 상담자가 137명(30.0%)으로 나타났다. 수집된 전체 자료($N=528$)는 탐색적 요인분석 집단($n=264$)과 확인적 요인분석 집단($n=264$)으로 무선분할되었으며, 두 집단 간 주요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절차

본 연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원척도 개발자인 Jesse Owen에게 연락하여 한국어판 척도 타당화 연구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척도 번안은 Brislin(1970)이 제안한 번역-역 번역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되었다. 우선 심리학 및 영어영문학을 전공한 이중언어자 2인이 원척도를 한국어로 번역하였고, 이를 심리학 및 언어학을 전공한 이중언어자 2인이 다시 영어로 역 번역하였다. 이후 별도의 이중언어자가 역 번역본과 원척도 문항의 개념적 일치성을 검토하였으며, 이 과정 전반에 걸쳐 상담학 전공 교수 1인의 감수 및 자문을 받아 문항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확정된 척도와 관련 설문지를 구성하여 상담 경험이 있는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최종 수집된 528명

의 자료를 무선분할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집단 1(264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문항의 기술통계치(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및 문항 양호도를 점검하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척도의 요인 구조와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이어 집단 2(264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도출된 요인 구조의 적합성을 검증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확정된 척도와 관련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을 통해 척도의 수렴 및 준거 관련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측정도구

여성에 대한 미묘한 차별

상담 장면에서 여성 내담자가 경험하는 미묘한 성차별을 측정하기 위해 Owen 등(2010)이 개발한 여성에 대한 미묘한 차별 척도(Microaggressions Against Women Scale [MAWS])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가 번안한 한국판 여성에 대한 미묘한 차별 척도(Korean version of Microaggressions Against Women Scale [K-MAWS])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원척도와 동일하게 총 7문항의 단일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1=매우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상담 내에서 미묘한 성차별을 더 많이 지각했음을 의미한다. 주요 문항으로는 “상담사가 여성의 능력이나 특성, 또는 선호에 대한 편견 어린 말을 하였다”, “상담사가 많은 여성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농담이나 발언을 하였다” 등이 포함된다. Owen 등(2010)의 연구에서 보고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75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92로

나타났다.

성차별 사건

K-MAWS의 수렴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Klonoff와 Landrine(1995)이 개발하고 김은하 등(2017)이 한국어로 타당화한 성차별 사건 척도(Schedule of Sexist Events [SSE])를 사용하였다. SSE가 상담 장면을 특정하여 측정하는 도구는 아니지만, 상담 관계 또한 대인 관계의 한 형태이며 해당 척도가 대인 관계 상호작용 전반에서 발생하는 성차별 경험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척도와 상관을 통해 수렴 타당도를 확인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척도는 총 20문항의 단일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6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6=거의 늘 그런 일이 일어났다)로 평정한다. 총점이 높을수록 생애 전반에 걸쳐 성차별 사건을 빈번하게 경험했음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문항으로는 “여자라는 이유로 전문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의사, 간호사, 학교 상담자, 심리상담사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등이 있다. Klonoff와 Landrine(1995)의 연구에서 보고된 내적 합치도는 .92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7로 나타났다.

일상 속 성차별 경험

K-MAWS의 수렴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김은하(2018)가 개발한 일상 속 성차별 경험 척도(Everyday Gender Microaggression Scale [EGM])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한국 여성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미묘한 성차별을 측정하는 도구로,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 요인은 ‘성차별 부정과 성역할 고정관념’ 9문항(예, “남자로부터 ‘이제 한국 사회에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없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과 ‘여성의 미모 강조’ 5문항(예, “지적이고 나이가 지긋한 남자 앵커와 젊고 미모가 뛰어난 여자 앵커가 나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으로 구분된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경험한 적 없다, 5=매우 자주 경험했다)로 평정하며, 총점이 높을수록 일상 생활에서 성차별을 빈번하게 경험했음을 의미한다. 김은하(2018)의 연구에서 보고된 내적 합치도는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4로 나타났다.

상담 만족도

K-MAWS의 준거 관련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Larsen 등(1979)이 개발하고 김원중(1993)이 번안한 상담 만족도 척도(Client Satisfaction Questionnaire [CSQ])를 사용하였다. 총 8문항의 단일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로 평정한다. 총점이 높을수록 내담자가 지각하는 상담의 주관적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주요 문항으로는 “이 상담은 전반적으로 나에게 만족스럽다”, “내가 다시 상담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면 이 상담자를 만나고 싶다” 등이 있다. 김원중(1993)의 연구에서 보고된 내적 합치도는 .9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도 .96으로 나타났다.

상담자 평가

K-MAWS의 준거 관련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Barak과 LaCrosse(1975)가 개발한 척도를 Corrigan과 Schmidt(1983)가 단축형으로 수정하고, 이를 조성윤(2002)이 번안한 상담자 평가 척도(The Counselor Rating Form-Short version [CRF-S])를 사용하였다. 총 12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하위 요인은 ‘상담자의 매력도’ 4 문항(예, “우호적이다”), ‘상담자의 전문성’ 4 문항(예, “경험이 많다”), ‘상담자의 신뢰성’ 4 문항(예, “믿을만하다”)이다. 각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며, 총점이 높을수록 내담자가 상담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함을 의미한다. 조성운(2002)의 연구에서 보고된 내적 합치도는 전체 .87, 하위 요인별로는 매력도 .82, 전문성 .75, 신뢰성 .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전체 .96, 하위 요인별로는 매력도 .88, 전문성 .91, 신뢰성 .92로 나타났다.

작업동맹

K-MAWS의 준거 관련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Horvath와 Greenberg(1989)의 척도를 Tracey와 Kokotovic(1989)이 단축형으로 수정하고, 이를 강혜영(1995)이 번안, 이수림(2008)이 타당성을 확인한 작업동맹 척도(Working Alliance Inventory-Short [WAI-S])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 요인은 ‘목표 합의’, ‘과제 합의’, ‘유대’로 각각 4개의 문항을 포함한다. 각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며, 총점이 높을수록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작업동맹이 건고함을 의미한다. 주요 문항으로는 목표 합의(예, “내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상담자와 나는 이해하는 바가 다르다”), 과제 합의(예, “나는 우리가 내 문제를 올바른 방식으로 다루고 있다고 믿는다”), 유대(예, “상담자는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다”) 등이 있다. 이수림(2008)의 연구에서 보고된 내적 합치도는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6으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통계 분석은 SPSS 29.0, AMOS 29.0 및 Jamovi 2.3.28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분석에 앞서 데이터의 교차타당화를 위해 전체 표본 528명을 두 개의 집단(각 $n=264$)으로 무선편할하였다. 독립표본 t -검정을 통해 두 집단 간 주요 변인의 평균 차이를 확인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인 분석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집단 1($n=264$)을 대상으로 문항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산출하여 정규성 가정과 문항의 변별력을 점검하고, 문항-총점 간 상관관계수 및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를 통해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이어 척도의 요인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적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FA)을 실시하였다. 이때 자료의 적합성은 KMO 표본적합도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으로 확인하였으며, 요인수 결정에는 카이저 규칙(Kaiser's rule), 스크리도표(Scree plot)와 더불어 무작위 자료와 실제 자료의 고유값을 비교하는 평행분석(Parallel Analysis)을 함께 적용하였다. 다음으로 집단 2($n=264$)를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여 EFA에서 도출된 요인 구조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모형 적합도는 χ^2 , CFI, TLI, RMSEA, SRMR 등의 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확정된 척도와 관련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척도의 수렴 및 준거 관련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상담자의 성별에 따라 여성 내담자가 지각하는 미묘한 성차별 경험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상담자 성별(남성/여성)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

하였다. 이는 상담자의 성별이 내담자에 대한 태도와 심리치료 과정에서의 경험 및 지각과 관련될 수 있음을 제시한 선행 연구(Artkoski & Saarnio, 2013; Schweitzer et al., 2024, 2025)에 근거하여, K-MAWS 타당화 과정에서 해당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미묘한 성차별 지각 간의 관련성을 탐색적으로 점검하기 위함이다.

결 과

문항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총 264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문항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문항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각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검토하였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든 문항의 평균은 2.11~2.50, 표준편차는 1.19~1.33의 범위로 나타나 탁진국(2007)이 제시한 문항 양호도 기준(평균 1.50 이상 4.50 이하, 표준편차 .70 이상)을 충족하였다. 또한, 각 문항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검토

한 결과, 왜도는 .26~.79, 첨도는 -1.29~-.56의 범위로 나타났다. 이는 Kline(2016)이 제시한 정규분포 가정 기준(왜도 절댓값 3 미만, 첨도 절댓값 8 미만)에 부합하는 수치이다. 이어 문항의 변별력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문항-총점 간 상관계수와 문항 간 상관계수를 확인하였다. 표 1과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K-MAWS의 문항-총점 간 상관은 .74~.89, 문항 간 상관은 .48~.75의 범위에 분포하고 있어 Gable과 Wolf(2012)가 제안한 양호도 기준(문항-총점 간 상관 .20 이상, 문항 간 상관 .20~.80)을 모두 충족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7개 문항 모두 평균, 표준편차, 정규성 및 상관관계 측면에서 양호한 수준임이 확인되어 문항 제거 없이 7문항 전체를 탐색적 요인분석에 사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먼저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 KMO 표본적합도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KMO 값은 .92로 기준치인 .50을 상회하여 양호한

표 1. 문항의 기술통계 및 문항-총점 상관 (n=264)

문항번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문항-총점 상관
1	2.50	1.308	.263	-1.293	.887***
2	2.22	1.194	.546	-.961	.776***
3	2.45	1.301	.389	-1.062	.798***
4	2.36	1.238	.474	-.892	.740***
5	2.23	1.327	.704	-.827	.863***
6	2.12	1.261	.792	-.562	.801***
7	2.11	1.285	.731	-.807	.851***

주. * $p < .05$, ** $p < .01$, *** $p < .001$

표 2. 문항 간 상관분석 결과

(n=264)

문항번호	1	2	3	4	5	6	7
1	-						
2	.657***	-					
3	.700***	.558***	-				
4	.580***	.578***	.528***	-			
5	.712***	.594***	.598***	.580***	-		
6	.662***	.488***	.548***	.484***	.712***	-	
7	.751***	.589***	.619***	.498***	.720***	.679***	-

주. * $p < .05$, ** $p < .01$, *** $p < .001$

것으로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역시 유의확률 .001 미만($p < .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자료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K-MAWS의 요인 구조를 파악하고자 최대우도법을 적

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 수 결정을 위해 카이저 규칙, 스크리 도표, 평행분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 각 문항의 공통성은 .44~.78의 범위로 나타나 기준치(.40)를 상회하였기에 7문항 모두

표 3.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항목	공통성	요인적재량
1. 상담사가 여성의 능력이나 특성, 또는 선호에 대한 편견 어린 말을 하였다.	.78	.88
7. 상담사가 많은 여성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농담이나 발언을 하였다.	.71	.84
5. 상담사는 나의 몸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바라본 적이 있다.	.71	.84
6. 때때로 상담사가 내 몸을 쳐다보는 것을 느꼈다.	.60	.77
3. 여성 일반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상담사가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7	.75
2. 상담사는 내가 연인 관계를 맺으면 (또는 현재 맺고 있는 관계를 유지하면), 보다 행복할 것이라고 암시한 적이 있다.	.52	.72
4. 상담사는 나에게 공격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덜 단호한 모습을 보이라고 권장하였다.	.44	.67
요인명		단일요인
고유값		4.68
분산비율		66.91
누적분산비		66.91

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요인 수 결정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유값이 1 이상인 요인은 1개(4.68)로 도출되었으며 이때의 누적 설명량은 66.91%였다. 스크리 도표의 기울기 변화 기준으로는 2개의 요인이 시사되었으나, 스크리 도표의 주관적 해석 가능성을 보완하고 요인 수를 보다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 실시한 평행분석 결과, 실제 자료의 고유값이 무선 자료의 평균 고유값보다 큰 구간은 1개로 나타났다(Hayton et al., 2004). 따라서 카이저 규칙과 평행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본 척도는 1요인 구조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척도는 단일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므로, 별도의 요인 회전은 실시하지 않았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구체적인 결과는 표 3과 같으며, 표에 제시된 수치는 회전 없이 산출된 각 문항의 요인적재량을 나타낸다.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K-MAWS의 1요인 구조가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사용되지 않은 별도의 표본 264명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평가는 표본 크기에 민감하여 기각되기 쉬운 카이제곱(χ^2) 통계량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χ^2/df (CMIN/df), CFI, TLI, SRMR, RMSEA 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적합도 판정 기준은 χ^2/df 는 5 이하, CFI와 TLI는 .90 이상, SRMR은 .08 이하일 때 적합한 것으로 보며, RMSEA는 .08 이하면 우수, .10 이

하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한다(홍세희, 2000). 분석 결과,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44.93$, $\chi^2/df=3.21$ 로 기준치인 5 이하를 충족하였다. 또한, CFI와 TLI 모두 .90 이상의 양호한 값을 보였으며, SRMR은 .031로 기준치(.08)보다 낮게 나타나 우수한 적합도를 보였다. RMSEA의 경우 .092로 나타나 우수한 수준(.08 이하)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이를 보통 수준의 적합도로 간주하는 기준(.10 이하)을 충족하며(홍세희, 2000), 다른 적합도 지수(CFI, TLI, SRMR)들이 매우 양호하게 나타났음을 고려할 때 해당 모형을 수용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잠재요인과 측정변인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준화 요인적재량(β)을 검토한 결과, 모든 문항이 .71에서 .87 사이의 값을 나타내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p<.001$). 문항별 다중상관자승(R^2) 값은 .51에서 .76 범위로 나타났으며, 각 문항의 요인적재량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그림 1에 제시하였다. 따라서 K-MAWS의 1요인 구조는 원척도와 동일하게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뢰도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거쳐 최종 확정된 K-MAWS 7문항의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집단 1($n=264$)의 전체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2로 나타나 높은 신뢰도 수준을 보였다. 또한, 최종 요인 구조가 확정된 확인적 요인분

표 4.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도

모형	χ^2	df	CMIN/df	CFI	TLI	SRMR	RMSEA
1요인	44.93	14	3.21	.97	.96	.031	.0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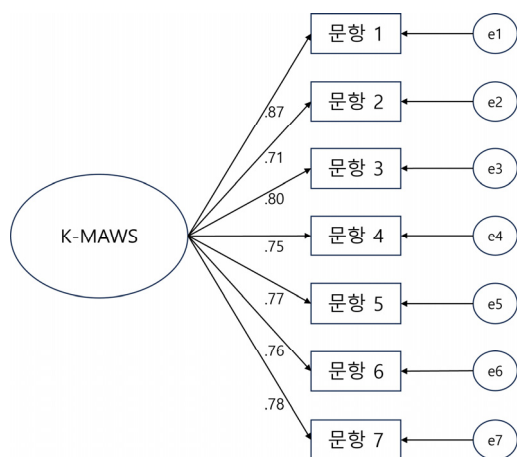


그림 1.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적 대상인 집단 2($n=264$)의 내적 합치도 역시 .92로 나타나, 본 척도의 높은 내적 합치도가 두 집단에서 일관되게 확인되었다.

타당도 분석

K-MAWS의 수렴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구성 개념을 측정하는 성차별 사건 척도 및 일상 속 성차별 경험 척도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여성에 대한 미묘한 차별은 성차별 사건($r=.59$, $p<.001$) 및 일상 속 성차별 경험($r=.43$,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일상 속 성차별 경험의 하위 요인인 ‘성차별 부정과 성역할 고정관

념’($r=.47$, $p<.001$)과 ‘여성의 미모 강조’($r=.31$, $p<.001$)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본 척도가 기존의 성차별 관련 척도들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임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수렴 타당도가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어 척도의 준거 관련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상담 성과 및 관계 변인인 상담 만족도, 상담자 평가, 작업동맹 척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여성에 대한 미묘한 차별은 상담 만족도($r=-.69$, $p<.001$), 상담자 평가($r=-.69$, $p<.001$), 작업동맹($r=-.75$, $p<.001$)과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하위 요인별 분석에서도 상담자 평가의 하위 요인인 상담자의 매력도($r=-.65$, $p<.001$), 전문성($r=-.60$, $p<.001$), 신뢰성($r=-.71$, $p<.001$)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작업동맹의 하위 요인인 목표 합의($r=-.76$, $p<.001$), 과제 합의($r=-.71$, $p<.001$), 유대($r=-.67$, $p<.001$) 또한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 장면에서 경험하는 성차별이 상담 성과와 치료적 관계에 부정적으로 관련될 것이라는 이론적 예측과 일치하는 것으로, 척도의 준거 관련 타당도가 적절함을 시사한다.

상담자 성별 변인에 따른 집단 간 비교 분석

본 연구에서 타당화된 K-MAWS를 활용하여, 상담자의 성별에 따라 여성 내담자가 지

표 5. 상담자 성별에 따른 여성에 대한 미묘한 차별 점수 비교

($n=456$)

구분	여성에 대한 미묘한 차별			$t(p)$
		N	M	SD
상담자 성별	여성	319	1.85	.83
	남성	137	3.17	.87

주. * $p<.05$, ** $p<.01$, *** $p<.001$

표 6. 주요 변인 간 상관분석 결과

	1	2	3	3-1	3-2	4	5	5-1	5-2	5-3	6	6-1	6-2	6-3
1. K-MAWS	-													
2. SSE	.59 ^{***}	-												
3. EGM	.43 ^{***}	.80 ^{***}	-											
3-1. 부정/고정관념	.47 ^{***}	.83 ^{***}	.98 ^{***}	-										
3-2. 미모 강조	.31 ^{***}	.61 ^{***}	.90 ^{***}	.79 ^{***}	-									
4. CSQ	-.69 ^{***}	-.37 ^{***}	-.25 ^{***}	-.28 ^{***}	-.16 ^{**}	-								
5. CRF-S	-.69 ^{***}	-.38 ^{***}	-.22 ^{***}	-.25 ^{***}	-.17 ^{***}	.92 ^{***}	-							
5-1. 매력도	-.65 ^{***}	-.38 ^{***}	-.21 ^{***}	-.24 ^{***}	-.13 [*]	.86 ^{***}	.95 ^{***}	-						
5-2. 진문성	-.60 ^{***}	-.34 ^{***}	-.17 ^{**}	-.21 ^{***}	-.08 ^{***}	.84 ^{***}	.95 ^{***}	.85 ^{***}	-					
5-3. 신뢰성	-.71 ^{***}	-.37 ^{***}	-.23 ^{***}	-.27 ^{***}	-.12 [*]	.90 ^{***}	.95 ^{***}	.84 ^{***}	.80 ^{***}	.85 ^{***}	-			
6. WAI-S	-.75 ^{***}	-.45 ^{***}	-.29 ^{***}	-.32 ^{***}	-.19 ^{**}	.85 ^{***}	.87 ^{***}	.83 ^{***}	.80 ^{***}	.79 ^{***}	.95 ^{***}	-		
6-1. 목표 합의	-.76 ^{***}	-.43 ^{***}	-.28 ^{***}	-.30 ^{***}	-.18 ^{**}	.78 ^{***}	.80 ^{***}	.75 ^{***}	.74 ^{***}	.79 ^{***}	.85 ^{***}	.87 ^{***}	-	
6-2. 과제 합의	-.71 ^{***}	-.42 ^{***}	-.28 ^{***}	-.31 ^{***}	-.19 ^{**}	.85 ^{***}	.87 ^{***}	.82 ^{***}	.79 ^{***}	.85 ^{***}	.96 ^{***}	.87 ^{***}	.88 ^{***}	-
6-3. 유대	-.67 ^{***}	-.43 ^{***}	-.27 ^{***}	-.30 ^{***}	-.17 ^{**}	.80 ^{***}	.82 ^{***}	.80 ^{***}	.76 ^{***}	.78 ^{***}	.95 ^{***}	.84 ^{***}	.88 ^{***}	.88 ^{***}

주. K-MAWS=여성에 대한 미모한 차별; SSE=성차별 사건; EGM=일상 속 성차별 경험(3-1. 성차별 부정과 성 역할 고정관념, 3-2. 여성의 미모 강조); CSQ=상담 만족도; CRF-S=상담자 평가(5-1. 매력도, 5-2. 진문성, 5-3. 신뢰성); WAI-S=작업동맹(6-1. 목표 합의, 6-2. 과제 합의, 6-3. 유대).

* $p < .05$, ** $p < .01$, *** $p < .001$.

각하는 미묘한 성차별 경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해 전체 표본($N=528$) 중 상담자 성별을 복수 응답한 사례를 제외한 456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남성 상담자에게 상담을 받은 내담자 집단($M=3.17$, $SD=.87$)이 여성 상담자에게 상담을 받은 내담자 집단($M=1.85$, $SD=.83$)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성차별 경험 점수를 보고하였다($t=-15.28$, $p<.001$).

논 의

상담은 내담자의 성장과 변화를 조력하는 전문적인 과정이나,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이 재현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특히 상담자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은연중에 전달되는 미묘한 성차별은 내담자에게 심리적 불편감을 유발하고 치료적 동맹을 와해시킬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상담 장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여성 내담자가 경험하는 미묘한 성차별을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타당화된 도구가 부재한 실정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Owen 등(2010)이 개발한 여성에 대한 미묘한 차별 척도(MAWS)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타당화하여, 국내 상담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경험적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상담 경험이 있는 국내 성인 여성 528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무선분할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집단 1($n=264$)을 대상으로 문항 분석 및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 구조를 파악하였고, 집단 2($n=264$)를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여 모형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아울러 성차별 사건, 일상 속 성차별 경험, 상담 만족도, 상담자 평가, 작업동맹과의 상관분석을 통해 척도의 수렴 및 준거 관련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타당화된 K-MAWS는 원척도와 동일하게 단일 요인 구조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한국과 미국이라는 문화적 배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상담 장면에서 여성 내담자가 지각하는 미묘한 성차별이 유사한 단일 차원으로 구성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단일 요인 구조가 나타난 결과는 상담이라는 특수한 맥락과 관련지어 해석해 볼 수 있다. 개방된 일상생활 공간에서는 차별의 형태가 공격, 모욕, 무효화 등으로 다양하게 분화되어 지각될 수 있으나, 상담실이라는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공간에서는 내담자가 경험하는 미묘한 불편감이 세분적인 유형으로 구분되기보다는 ‘상담자로부터 존중받지 못함’ 혹은 ‘안전하지 않음’이라는 하나의 통합된 경험으로 지각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직장 내 성차별 경험 척도 개발 연구(김은하 등, 2017)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미묘한 차별의 하위 유형을 명확히 구분할 만큼 미묘한 성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세분화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내담자들은 상담자의 미묘한 성차별적 발언을 구체적인 유형으로 분류하기보다는, 상담 관계 전반을 저해하는 하나의 부정적 정서 경험으로 통합하여 받아들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본 척도의 준거 관련 타당도 검증 결과, 여성에 대한 미묘한 차별은 성차별 사건 및 일상 속 성차별 경험과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상담 만족도, 상담자 평가, 작업동맹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 장면에서 여성 내담자가 지각한 미묘한 성차별이 작업동맹 및 상담 성과와 부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나타난 Owen 등(2010)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Constantine(2007)의 인종적/민족적 미묘한 차별에 대한 연구에서도 내담자가 인종적 미묘한 차별을 많이 인식할수록 상담 만족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Owen 등(2011)의 연구에서는 인종적 미묘한 차별에 대한 내담자의 회고적 평가 결과가 작업동맹 및 내담자의 심리적 안녕감과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특히, 작업동맹($r = -.75$)과 매우 강한 부적 상관을 보인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담실은 내담자가 자신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드러내는 안전 기지로 기능해야 한다. 그러나 이 공간에서 발생하는 미묘한 차별은 내담자로 하여금 상담자의 전문성과 공감 능력을 근본적으로 의심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내가 예민한 것인가?’라는 자기 의심을 유발하여 내담자를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만들으로써 치료적 동맹을 와해시킬 수 있다. 특히 미묘한 차별은 명백한 차별과 달리 상담자가 이를 부인하거나 ‘치료적 개입’으로 합리화하기 쉽기 때문에, 내담자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제기하지 못한 채 상담 관계를 철회하거나 조기 종결하는 방식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높은 상관은 상담에서의 성차별 경험이 단순한 심리적 불편감을 넘어, 작업동맹과 상담 만족도 등 상담의 핵심적인 관계 및 성과 변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추가 분석을 통해 상담자의 성별에 따라 내담자가 지각하는 미묘한 성차별 경험

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남성 상담자에게 상담을 받은 내담자가 여성 상담자에게 받은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은 성차별 경험 점수를 보고하였다. 이는 상담자 성별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던 Owen 등(2010)의 연구와 대조되는 결과이다. 이러한 차이는 상담 관계 역시 사회문화적 맥락의 연장선에 있음을 시사한다. 남성 상담자와의 상담에서 성차별적 발언이나 태도가 더 빈번하게 경험되었을 가능성과, 여성 내담자가 이성인 남성 상담자와의 상호작용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미묘한 차별적 단서를 더욱 민감하게 지각했을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다. 비록 척도 타당화라는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아니며 이러한 차이의 구체적인 기제를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나, 본 결과는 상담자의 성별이 여성 내담자의 미묘한 성차별 지각과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가 어떠한 기제에서 비롯되는지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학문적, 임상적 의의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문적으로는 그동안 국내 상담 학계에서 연구가 매우 제한적이었던 상담 장면에서의 미묘한 성차별을 가시화하고, 이를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기존 국내 연구들이 상담자의 다문화 역량이나 성역할 태도 등을 주로 다루어 왔다면, 본 연구는 내담자의 주관적 경험을 직접 측정함으로써 상담 성과(작업동맹, 만족도 등)와 성차별 경험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는 향후 상담 장면에서의 성차별 경험이 상담 중단이나 실패에 미치는 구체적인 기제를 밝히

는 후속 실증 연구의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둘째, 임상적으로 본 척도는 상담자 교육 및 슈퍼비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미묘한 성차별은 그 특성상 무의식적이고 일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상담자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한 채 내담자에게 상처를 주거나 치료적 관계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본 척도의 문항은 여성 내담자가 상담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미묘한 성차별의 구체적인 양상을 이해하고, 상담자의 언어나 태도에 내재할 수 있는 무의식적인 편견이나 젠더 위계적 태도를 성찰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성찰의 과정은 단지 개별 상담자의 노력을 넘어 정규 교육 과정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이는 예비 상담자들이 성별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감수성과 옹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김은하 등(2019)의 제언과도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성찰과 교육을 토대로 상담자가 DeBlaere 등(2023)이 강조한 문화적 겸손(cultural humility)의 태도를 갖추고 접근한다면, 내담자가 자신의 모호한 불편감을 보다 명확히 인식하고 언어화하도록 돕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며, 이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첫째, 연구 참여자의 대다수가 20~30대(91.7%)의 수도권 거주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결과를 국내 전체 여성 내담자로 일반화하는 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세대에 따라 젠더 이슈에 대한 인식이나

성역할 규범의 내면화 정도가 다를 수 있으며, 동일한 상담자의 태도 역시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연령, 지역, 학력 등 인구통계학적 배경을 확대한 폭넓은 표집을 통해 척도의 일반화 가능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타당화한 원척도(MAWS)의 실증적 근거가 제한적이며, 서구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원저자들은 척도 개발 당시 해당 연구를 초기 타당도 근거 수준으로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척도의 교차 검증이나 이를 활용한 후속 선행 연구가 충분히 누적되지 못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요인 구조와 신뢰도 및 일부 타당도 근거가 확인되었으나, 한국 사회 특유의 나이, 직급에 따른 위계 문화나 가족주의적 가치관이 상담 과정에서 성차별과 결합하여 나타나는 변형된 양상까지 충분히 포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본 척도를 활용한 다양한 경험적 연구가 축적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한국 여성들이 상담 장면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고유한 차별 양상을 탐색하고 이를 반영한 한국형 척도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시도가 요구된다.

셋째, 본 척도의 문항 특성상 ‘미묘한 모욕(microinsult)’에 집중되어 있어, 상담 장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의 다양한 양상을 포괄적으로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최종 확정된 척도의 문항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무의식적인 편견이나 Glick과 Fiske(1996)가 제시한 온정적 성차별(benevolent sexism)을 내포한 미묘한 모욕에 가까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문항 구성은 전문적 윤리와 치료적 관계가 강조되는 상담 장면에서 차별이 노골적인 형

태보다는 상담자의 선의의 조언이나 보다 간접적인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과 관련지어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김혜민과 유금란 (2021)의 연구에서 LGB 내담자들이 상담 상황에서 미묘한 공격(microassault)이나 미묘한 무효화(microinvalidation)를 경험한다고 보고한 바와 같이, 상담 장면에서 다른 유형의 차별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여성 내담자가 경험하는 미묘한 차별의 다양한 하위 유형과 강도를 보다 세밀하고 포괄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척도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혜영 (1995). 상담자 경력에 따른 상담협력 관계의 차이 분석.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혜원, 이정운 (2020). 미묘한 성차별(Gender Microaggression)에 대한 개념도 연구: 20대 여성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106(3), 63-92.
- 김민예숙, 강문순 (2004). 여성주의상담자 교육 모델에 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9(3), 1-25.
- 김원중 (1993). 상담자 자아개방이 관찰자의 상담평가에 미치는 영향: 상담자의 성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은하 (2018). 일상 속 성차별 경험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4(4), 593-614.
- 김은하, 김지수, 박한솔, 김도연, 김수용 (2017). 직장 내 성차별 경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우울에 대한 연구: 척도 개발 및 매개효과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2(4), 643-667.
- 김은하, 신윤정, 이지연 (2019). 상담전공대학원생을 위한 다문화 상담 교과 과정개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4), 1321-1364.
- 김재희, 이영순 (2021). 20대 여성의 일상 속 성차별 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통제감의 매개효과. *교육치료연구*, 13(2), 291-311.
- 김창대, 한영주, 손난희, 권경인 (2009). 상담전공 내담자가 지각한 효과적인 상담자 요인. *상담학연구*, 10(1), 83-107.
- 김혜민, 유금란 (2021). LGB 내담자가 경험하는 상담자의 마이크로어그레션에 관한 개념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3(4), 1501-1526.
- 마경희, 김경희, 박수범, 이솔 (2016). 양성평등정책 추진 방향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마경희, 문희영, 조서연, 김리나 (2017). 지배적 남성성의 균열과 변화하는 남성의 삶.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기남 (2004). 노년기 삶의 만족도의 성별 차이. *한국노년학*, 24(3), 13-29.
- 백재연 (2025. 12. 5.). 지난해 남녀 임금격차가 31.6%...OECD 꼴찌. *국민일보*.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9073284>
- 송유미, 이제상 (2011). 저출산의 원인에 관한 연구: 산업사회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진출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1(1), 27-61.
- 여성가족부 (2021). 청년의 생애과정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미래 전망 연구.

- 이도경, 김형빈 (2022). 성인지 감수성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5), 567-581.
- 이수림 (2008). 상담자의 지혜와 상담과정 및 성과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철휘 (2025. 6. 12.). 한국, 성평등 세계 94위 →101위...“정치·경제 격차 여전”.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612_0003210600.
- 장성숙 (2003). 한국문화와 현실역동상담의 상담자-내담자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2), 147-160.
- 장성숙 (2010). 상담자의 어른역할이 상담성과에 미치는 영향·‘이야기 방식’에 기초한 보고 형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6(3), 311-329.
- 조성윤 (2002). 내담자의 낙관성 수준에 따른 상담 회기 및 상담자 평가.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훈제, 이재복, 최연재, 연규진 (2023). 상담자의 사회정의 옹호역량과 외현적·암묵적 성 고정관념이 내담자 호소 문제 귀인에 미치는 영향: 미묘한 성차별 사례를 중심으로. *인간이해*, 44(1), 71-96.
- 차혜진, 김명찬 (2021). 중년 여성의 성차별 경험과 분투(奮鬪)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24), 39-59.
- 최성욱 (2015). 홉스테드(G. Hofstede)의 문화차원에 대한 타당성 검증. *한국행정논집*, 27(4), 1011-1032.
- 탁진국 (2007). 심리검사 개발과 평가 방법의 이해 (제2판). 학지사.
- 한국여성민우회 (2017). 성차별 보고서 토론회 자료집.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사회의 성평등 현안 인식조사 결과 발표.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Algner, M., & Lorenz, T. (2022). You're prettier when you smi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questionnaire to assess microaggressions against women in the workplace. *Frontiers in Psychology*, 13, 809862.
- Artkoski, T., & Saarnio, P. (2013). Therapist's gender and gender roles: Impact on attitudes toward clients in substance abuse treatment. *Journal of Addiction*, 2013, Article 591521.
- Barak, A., & LaCrosse, M. B. (1975). Multidimensional perception of counselor behavio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2(6), 471-476.
- Bearman, S., Korobov, N., & Thorne, A. (2009). The fabric of internalized sexism. *Journal of Integrated Social Sciences*, 1(1), 10-47.
- Becker, J. C., & Swim, J. K. (2011). Seeing the unseen: Attention to daily encounters with sexism as way to reduce sexist belief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5(2), 227-242.
- Brislin, R. W. (1970). Back-translation for cross-cultural research.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3), 185-216.
- Capodilupo, C. M., Nadal, K. L., Corman, L., Hamit, S., Lyons, O. B., & Weinberg, A. (2010). The manifestation of gender microaggressions. In D. W. Sue (Ed.), *Microaggressions and marginality: Manifestation, dynamics, and impact* (pp. 193-216). John

- Wiley & Sons.
- Constantine, M. G. (2007). Racial microaggressions against African American clients in cross-racial counseling relationship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4(1), 1-16.
- Corrigan, J. D., & Schmidt, L. D. (198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revisions in the Counselor Rating Form.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0(1), 64-75.
- DeBlaere, C., Zelaya, D. G., Dean, J. A. B., Chadwick, C. N., Davis, D. E., Hook, J. N., & Owen, J. (2023). Multiple microaggressions and therapy outcomes: The indirect effects of cultural humility and working alliance with black, indigenous, women of color clients.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54(2), 115-124.
- Feigt, N. D., Domenech Rodríguez, M. M., & Vázquez, A. L. (2022). The impact of gender-based microaggressions and internalized sexism on mental health outcomes: A mother-daughter study. *Family Relations*, 71(1), 201-219.
- Gable, R. K., & Wolf, M. B. (2012). *Instrument development in the affective domain: Measuring attitudes and values in corporate and school settings* (Vol. 36).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 Gartner, R. E., Sterzing, P. R., Fisher, C. M., Woodford, M. R., Kinney, M. K., & Victor, B. G. (2020). A scoping review of measures assessing gender microaggressions against wom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44(3), 283-306.
- Glick, P., & Fiske, S. T. (1996). The Ambivalent Sexism Inventory: Differentiating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3), 491-512.
- Hayton, J. C., Allen, D. G., & Scarpello, V. (2004). Factor retention decisions i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 tutorial on parallel analysis.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7(2), 191-205.
- Hofstede, G. (1980).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Sage Publications.
- Horvath, A. O., & Greenberg, L. S. (198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Working Alliance Invent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2), 223-233.
- Jost, J. T., & Banaji, M. R. (1994). The role of stereotyping in system justification and the production of false consciousnes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3(1), 1-27.
- Jost, J. T., Banaji, M. R., & Nosek, B. A. (2004). A decade of system justification theory: Accumulated evidence of conscious and unconscious bolstering of the status quo. *Political Psychology*, 25(6), 881-919.
- Judson, S. S. (2014). *Sexist discrimination and gender microaggressions: An exploration of current conceptualizations of women's experiences of sexis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Akron.
- Kim, J. Y., & Meister, A. (2023). Microaggressions, interrupted: The experience and effects of gender microaggressions for women in STEM. *Journal of Business Ethics*, 185(3), 513-531.
- Kline, R. B. (2016).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4th ed.). Guilford

- Press.
- Klonoff, E. A., & Landrine, H. (1995). The Schedule of Sexist Events: A measure of lifetime and recent sexist discrimination in women's live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9(4), 439-472.
- Larsen, D. L., Attkisson, C. C., Hargreaves, W. A., & Nguyen, T. D. (1979). Assessment of client/patient satisfaction: Development of a general scale.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2(3), 197-207.
- Lee, S. C. (2025). Anti-gender politics, economic insecurity, and right-wing populism: The rise of modern sexism among young men in South Korea. *Social Politics: International Studies in Gender, State & Society*, 32(3), 584-611.
- Lewis, J. A., & Neville, H. A. (2015). Construction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Gendered Racial Microaggressions Scale for Black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2(2), 289-302.
- Miyake, E., Ahn, L. H., Tran, A. G. T. T., & Atkin, A. L. (2025). Women's Microaggressions Scale (WoMenS): A comprehensive sexism scale. *The Counseling Psychologist*, 53(2), 174-209.
- Nadal, K. L. (2008). Preventing racial, ethnic, gender, sexual minority, disability, and religious microaggressions: Recommendations for promoting positive mental health. *Prevention in Counseling Psychology: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Training*, 2(1), 22-27.
- Owen, J., Imel, Z., Tao, K. W., Wampold, B., Smith, A., & Rodolfa, E. (2011). Cultural ruptures in short-term therapy: Working alliance as a mediator between clients' perceptions of microaggressions and therapy outcomes. *Counselling and Psychotherapy Research*, 11(3), 204-212.
- Owen, J., Tao, K., & Rodolfa, E. (2010). Microaggressions and women in short-term psychotherapy: Initial evidence.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8(7), 923-946.
- Perez Gomez, J. (2022). Pushed to the edge of knowing: Microaggression and self-doubt. *Journal of Applied Philosophy*, 39(4), 645-663.
- Schweitzer, E., Schaffler, Y., Jesser, A., Probst, T., Humer, E., & Schigl, B. (2024). Gendered capital in psychotherapy: A thematic analysis of patients' experiences of the therapists' gender. *Counselling and Psychotherapy Research*, 24(4), 1357-1367.
- Schweitzer, E., Schaffler, Y., Probst, T., Humer, E., Pieh, C., & Schigl, B. (2025). Gendered dynamics in outpatient psychotherapy: An interpretative phenomenological analysis of female patients' and male therapists' experiences.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98(4), 1064-1082.
- Shelton, K., & Delgado-Romero, E. A. (2011). Sexual orientation microaggressions: The experience of lesbian, gay, bisexual, and queer clients in psychotherap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8(2), 210-221.
- Sue, D. W., Capodilupo, C. M., Torino, G. C., Bucceri, J. M., Holder, A. M. B., Nadal, K. L., & Esquilin, M. (2007). Racial microaggressions in everyday life: Implications for clinical practice. *American Psychologist*, 62(4), 271-286.

- Sue, D. W., & Spanierman, L. B. (2020). *Microaggressions in everyday life*. John Wiley & Sons.
- Sue, D. W., Sue, D., Neville, H. A., & Smith, L. (2022). *Counseling the culturally diverse: Theory and practice*. John Wiley & Sons.
- Swim, J. K., Aikin, K. J., Hall, W. S., & Hunter, B. A. (1995). Sexism and racism: Old-fashioned and modern prejudi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2), 199-214.
- Tracey, T. J., & Kokotovic, A. M. (1989). Factor structure of the Working Alliance Inventory. *Psychological Assessment: A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1(3), 207-210.
- Wong, G., Derthick, A. O., David, E. J. R., Saw, A., & Okazaki, S. (2014). The what, the why, and the how: A review of racial microaggressions research in psychology. *Race and Social Problems*, 6(2), 181-200.
- 원 고 접 수 일 : 2026. 02. 05
수정원고접수일 : 2026. 04. 10
게 재 결 정 일 : 2026. 05. 18

A Validation Stud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Microaggressions Against Women Scale (K-MAWS) among Female Clients

Hyunseo Yu

Dankook University
Master's Graduate, Department of Counseling

Soo-im Kim

Dankook University
Professor, Department of Counsel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alidate the Korean version of the Microaggressions Against Women Scale (MAWS; Owen et al., 2010) to measure gender microaggressions experienced by female clients in counseling settings. Data were collected from 528 adult women with counseling experience. A randomly selected sub-sample of 264 participants was used for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the remaining 264 were used for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sults confirmed the original seven-item, one-factor structure was appropriate for Korean female clients. The K-MAWS showed high internal consistency (Cronbach's $\alpha = .92$). Validity analyses indicate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with sexist events and everyday gender microaggressions, and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s with counseling satisfaction, counselor evaluation, and working alliance, thereby establishing convergent and criterion-related validity. This study provides a systematically validated instrument to assess gender microaggressions within Korean counseling contexts and offers foundational data for counselor gender-sensitivity training and gender-equitable counseling environments.

Key words : Microaggressions, Gender Microaggressions, Counseling Setting, Female Clients, Scale Validation, K-MAWS